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쉬는 건 ‘소원’(desire)이라 부르기 때문입니다. (AC.8910)

###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sup>15</sup>도독질하지 말라 <sup>16</sup>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 하지 말라 <sup>17</sup>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네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출20:15-17)

‘탐욕’(coveting)이 의미하는 바는 악한 사랑으로 무얼 의도하는 것입니다. 탐욕이 이런 의미를 갖는 까닭은 모든 강한 탐심(concupiscence)은 어떤 사랑에 속하기 때문인데요, 애당초 사랑이라는 걸 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탐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강한 탐심(혹은 ‘탐욕’)은 끊임없는 사랑, 이 경우에는 끊임없이 자기를 사랑하거나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되겠고, 그건 마치 그 사랑으로 숨 쉬며 살아가는 것과 같겠습니다. 악한 사랑으로 숨 쉬는 걸 ‘탐심’이라 하고, 선한 사랑으로 숨

※ AC(Arcana Coelestia, 천국의 비밀) 위 8904번 글에 대한 Clowes 영역 및 Potts 개정본은 다음과 같습니다.

*...the signification of “coveting” [concupiscere], as being to will from an evil love. That “coveting” has this signification, is because all concupiscence is of some love; for nothing is coveted [concupiscitur] unless it is loved, and therefore concupiscence [or “coveting”] is the continuous of love, in this case of the love of self or of the world, and is as it were the life of its breath. For that which an evil love breathes is called “concupiscence,” but that which a good love breathes is called “desire.”*

이는 오늘 본문 17절,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네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Thou shall not covet thy nei

출20:15-17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ghbor's house, thou shalt not covet thy neighbor's wife, and his manservant, and his maidservant, and his ox, and his ass, and anything that is thy neighbor's.*)  
에 관한 주석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십계명의 일곱 가지 계명의 의미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나머지 여덟, 아홉, 그리고 열 번째 계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여덟 번째 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연적 의미로 도둑질은 다른 사람의 것을 훔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재물뿐만 아니라, 권리나 기회 같은 걸 훔치는 것도 모두 도둑질입니다. 그런데 영적 의미는 다릅니다. 영적으로 도둑질은 다른 사람에게 있는 선이나 진리를 빼앗는 것입니다. 선과 진리를 빼앗는다는 건 목회자와 같이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거짓 진리를 퍼뜨리는 것입니다. 또는 이웃을 설득, 옹호하지 않은 일에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결과적으로 이

웃이 선하게 사는 것을 방해하고, 그렇게 해서 그들에게 있는 진리와 선을 빼앗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영적으로는 도둑질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은 사람 간 관계에서 일어나는 도둑질이요, 주님과 관계에서는 주님의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야 합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건 주님이 주신 것이 이기적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주님과 이웃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요, 또 주님 앞에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겸손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자기가 누리는 것들이 모두 자기 힘으로 성취한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이 가진 사람들일수록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주님 앞에 겸손하지 않고, 또 가진 것을 주님과 이웃을 위해 사용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자신들의 즐거움만을 위해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주님의 것을 훔치는 사람이고, 그래서 영적으로는 도둑들입니다. 이렇게 영적 도둑질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사람들 간 관계에

##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서 도둑질이 있고요, 주님과과의 관계에서 도둑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영적 도둑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sup>1</sup>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sup>2</sup>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sup>9</sup>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sup>10</sup>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10:1-2, 9-10)

이 말씀에서 주님은 당신 자신을 양의 문이라 하시고,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양의 목자라 하십니다. 양의 목자는 주님이 주신 진리를 가지고 양들을 가르치는 자이며, 그래서 그는 참된 목자입니다. 그런가 하면, 문이 아니라 다른 데로 넘어오는 자가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진리가 아니라 인간의 지성을 통해 얻은

지식을 가지고 양들을 가르치는 자입니다. 주님은 그들을 강도요, 도둑이라 하시는데요, 그 이유는 그들이 인간의 생각, 즉 거짓 진리로 교인들을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교인들이 이런 거짓 진리를 받아들여지게 되면, 기왕에 가지고 있던 진리와 선마저도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들의 마음에 거짓 진리가 심어지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이런 걸 가리켜 영적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서는 이제 아홉 번째 계명을 주십니다. 아홉 번째 계명은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 하지 말라’입니다.

보통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 한다’ 하면 ‘이웃을 비방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사실 거짓 증거는 단순히 비방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질이 더 나쁜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짓 증거는 진실을 뒤집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즉 진실을 거짓이라 하고, 거짓을 진실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요즈음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일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이 인터넷을 통해 거짓말을 합니다. 인터넷 공간에 거짓 정보

출20:15-17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들이 넘치는 이유는, 사람들의 마음에 진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진리가 없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맹인, 곧 영적 시각장애인이 됩니다. 그래서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객관적인 진실에는 관심이 없는 대신 그저 자기가 원하는 것만 들으려 하고, 또 그것을 진실이라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 진실이 거짓이 되고, 거짓이 진실이 되어버리는 일이 일반화 되어 버렸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자연적 의미에서 거짓 증거 하는 것입니다.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 하다’의 영적 의미, 곧 속뜻은 다음과 같은데요, 속뜻으로 이웃은 선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새 교회 가르침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이라는 어떤 특정인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에게 있는 선을 지지하고, 격려,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웃이 악을 행하는데도 계속 참고 봐주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 하는 것은 성경에서 가르치는 선을 선이 아니라 하고, 또 선이

아닌 것을 선이라 하는 것입니다. 또는 성경에서 가르치는 진리를 진리가 아니라 하고, 진리 아닌 것을 진리라 하는 것입니다.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 하는 사람들은 예를 들면, 유대교회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조작, 이른바 장로의 전통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진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백성들에게 그것을 지킬 것을 강요했습니다. 심지어 주님과 주님의 제자들에게까지 그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sup>6</sup>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sup>7</sup>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sup>8</sup>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sup>9</sup>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막7:6-9)

라고 탄식하셨습니다. 신앙의 진

##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리를 거짓으로 만드는 일은 오늘날에도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믿음과 삶을 분리하는 교회의 교리가 그렇고, 주님보다 인간을 만드는 행태가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모두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 하는 일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 하십니다.

17절에서 주님은 열 번째 계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17**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네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여기서 이웃의 소유는 어떤 사람에게 있는 선과 진리 전체를 말합니다. 즉 이웃의 집은 선을 나타내고요, 이웃의 아내는 진리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웃의 남종과 여종은 선과 진리를 섬기는 자이기 때문에, 진리 또는 선에 대한 애정을 나타냅니다. 그러면 소와 나귀는 무엇일까요? 소와 나귀는 가장 낮은 등급인 자연적 등급의 진리와 선을 의미합니다.

새 교회에서는 선과 진리를 보통 세 가지 등급으로 설명합니다. 가장 높은 등급은 천적 등급입니다. 그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등급, 즉 선 그 자체를 사랑하는 등급입니다. 두 번째 등급은 영적 등급입니다. 영적 등급은 이웃을 사랑하는 등급이며, 다르게 말하면 진리를 사랑하는 등급입니다. 그리고 가장 낮은 등급은 자연적 등급인데, 그것은 세상 법이나 규칙 같은 것을 잘 지키는 정도의 등급입니다. 그런데 다른 각도에서 보면, 자연적 등급은 영적, 천적 등급의 진리와 선이 겉으로 드러나는 등급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천적 선과 진리가 삶의 행위로 나타날 때 그것이 자연적 진리와 선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연적인 것이 없으면 영적인 것도, 천적인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기초 없는 집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볼 때 선과 진리를 등급에 따라 구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상관관계를 이해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그렇게 볼 때 집과 아내로 표현되는 선과 진리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천적, 영적 선과 진리이구요, 소와 나귀로 표현된 것은 외적 삶을 통해 드러나는 선과 진리라고 볼

출20:15-17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진실한 말투와 화법, 선하고 합리적인 행동거지, 성실하고 조화롭게 일하는 모습 같은 것들이 모두 자연적 선이요 진리들이며, 또한 소와 나귀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 내면과 외면, 외적인 삶 가운데 있는 선하고 진실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탐내지 말라’ 하십니다. 탐낸다는 말은, 한글 성경의 번역이고요, 영어 성경의 표현은 covet입니다. covet은 탐낸다는 뜻도 있지만, ‘시기하다’, ‘시샘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것은 이웃의 선하고 진실한 성품을 시기하지 말라는 뜻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습니다. 사람들이 이웃의 선하고 진실한 면을 시기하는 이유는 이기심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이웃이 자기보다 영적으로 우월한 것을 인정할 수 없다는 심리입니다. 거듭나기 전에는 누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모르게 지옥으로부터 그런 생각이 흘러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 그런 생각이 든다면 그냥 지나가도록 내버려 두어야 합니다. 그러면 자기가 왔던 지옥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덜컹 붙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기하는 마음이 생각을 통해 의지로 들어가 우리 생명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말이나 행동을 할 때마다 의지로부터 시기하는 악이 튀어나옵니다. 우리 인격이 그렇게 변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 주님께서 마태복음 1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sup>11</sup>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sup>17</sup>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sup>18</sup>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sup>19</sup>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sup>20</sup>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마15:11, 17-20)

입으로 들어가 배를 통해 뒤로 버려지는 것은 지옥으로부터 나쁜 생각이 들어왔다가 왔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뒤로 버려지는 것은 지옥으로

##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되돌아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  
입니다. 그리고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라 하  
신 것은 악이 의지로부터 말과  
행동을 통해 밖으로 나오는 모습  
입니다.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은  
의지로부터 나온다는 뜻입니다.  
시기와 탐욕이 의지로부터 나와  
말과 행동이 될 때 인격이 악하  
게 변하는데, 그것을 주님께서  
‘**마음에서 입을 통해 나오는 것  
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라는  
말씀으로 표현하셨습니다. 이 말  
씀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  
르치고자 하시는 것은 악한 생각  
이 잠시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은  
죄가 되지 않지만, 그것을 우리  
의지로 만드는 것은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웃의 소유  
를 탐하지 말라**’는 말씀은 앞  
서 명령하신 계명들, 즉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 하지 말라는, 이  
들 계명들과 관련된 자기 사랑과  
세상 사랑의 악들이 우리의 생명  
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말씀  
입니다. 따라서 거듭나는 동안 우  
리는 타고난 자아를 죽이는 연습  
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주  
님을 믿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이 우리의 새로운 자아가 되고,

생명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십계명의 의미에 대해  
서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십계명  
은 한마디로 ‘**자아에 대한 사랑  
을 버리라**’는 주님 명령입니다.  
태양으로부터 과장이 다른 수 많  
은 빛이 나오는 것처럼 자아 사  
랑으로부터 수많은 종류의 악이  
나옵니다. 그러한 다양한 악들이  
바로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 그리  
고 거짓 증거와 이웃의 소유를  
탐하는 행위 안에 집약되어 있습  
니다. 자아에 대한 사랑을 버리  
고 하면 주체로서의 자기를 버리  
라는 말이냐? 하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타고난  
자아를 버림으로써 주님의 자아  
를 우리의 생명으로 만들 수 있  
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우  
리는 비로소 충만해질 수 있습니  
다. 타고난 자아의 상태에서는 생  
명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없습니  
다. 오직 주님 생명이 우리의 생  
명 될 때 우리는 충만해질 수 있  
는 것입니다. 충만함이란 주님과  
이웃을 충심으로 사랑하는 상태  
이며, 그로 인한 평화와 순진함이

출20:15-17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있는 상태입니다. 십계명을 내적, 외적으로 지키는 서울 새 교회와 한결같은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한없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만일 네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마5:29)

아멘

원본

2017-06-04(D1)

서울 새 교회 이순철 목사

설교

2023-01-25(D4)

한결같은교회 변일국 목사